독자투고

정책 부재와 기강 해이가 참사 원인
'아래로부터의 개혁' 없인 발전 없어

"넋이라도 파도타고 오소"

"어서 오소, 어서 와. 넋이라도 어서 와.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타고 어서 오소."

19일 오후 5시 40분쯤 서해 훼리호 마지막 기항지였던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 선착장에서 백운두선장 부인인 김효순씨의 절규가 바다를 향해 울려퍼졌다.

모두가 살았다고 떠들어대던 날뛰는 시신을 고향에 묻지 못하고 딸내외가 살고 있는 전북 이리에서 장례를 치른 뒤 생전에 남편이 오가던 항로를 따라 위도로 올라와 넋 건져올리기를 하고 있는 비망인.

"이 사람아, 이 사람아. 혼이라도 건지러 내가 왔네. 25년간 파도만 타고 살더니…"

"안전요 도와서해야 이용이 남는다…"

지난 10월 10일 위도 앞바다에서는 여객선 침몰사고가 났었다. 2백 86명의 생명을 집어삼킨 위도 앞바다는 어느새 어둠이 깔려있고 굿판의 징소리와 흔들리는 어선들의 불빛으로 스산하기 짝이 없다.

"교통의 공공성을 주장한다./"

업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전을 도외시해야 이윤이 남게 되어 있는 현실이 문제이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현실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엉세하고 낙후되어 있는 연안여객선업자들에게 다른 곳과 똑같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담들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길수도 없는 노릇이다. 교통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교통정책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아시아나 항공 733편의 추락사고를 보자. 탑승객의 안전보다는 두 항공사간의 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보자는 이기와 탐욕은 결국 승객의 안전을 짝인겨야 할 기장들에게 무리한 착륙을 강제해 왔고 급기야 66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태를 빚었다. 이런 항공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항의 시설을 확장, 현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은 채 무리한 시도를 하는 회사의 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과 방책을 도입하는 것이 함께 시행되어야 함을 우리는 항공기 추락사건에 주장했다. 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공공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교통정책과 안전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니고서는…"

김영삼정권의 개혁은 공직자 재산 공개로부터 최근의 금융실명제 실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도가 90%를 상회하는 현 상황을 보며, 어쩐든 과거의 정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집권 초기의 정치를 구사하고 있는 김영삼씨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 선명하게 사회의 전반적인 부정과 부패의 썩은 고름들이 드러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문민 정부 출범이후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형 참사들—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건, 열차 전복사건, 훼리호 침몰사건(그나마 가까스로 인양한 배는 다시 침몰하고 서울의 지하철 1호선 탈선사고는 국민들을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하도록 만들었다)—은 사건당사자들의 부주의함은 차치해두더라도 국가행정의 무사안일함과 저무유기에 어떠 예견된 사고였다는 사실, 최근의 한·약 분쟁에 대한 보사부의 해임 방기등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걸쳐 썩어있는 이 사회의 관료화와 낡고 부패함의 깊이를 한층 깊게 느끼게 할 뿐이다. 이미 자기 정화능력을 상실해버린 썩은 사회의 개조는 결코 YS식의 몇명에 대한 본보기 숙청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사회의 합리적 발전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의 썩은 부위에 대한 과감한 도려냄과 국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이제 한걸음도 진보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다다랐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섬사람들의 비애를 물사람들은 모를 것이구만요. 제 맘대로 오가게도 못하는 것이 섬이나다요. 주말과 공휴일에라도 여객선을 두차례씩 운항해 달라고 그간 여러번 건의했는데…"

한 주민은 그 건의가 받아들여졌다면 이런 비극도 없었을 것이라고 미망인을 위로한다. 섬사람들도 교통의 공공성에 입각한 공평한 교통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개혁은 위에서 장판을 몇명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섬사람들의 건의가 통할 수 있고 그들의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것만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으리라….

문 태 준
〈철학·3〉

알림대

교수동정

정인식 교수 방미

【서울캠퍼스】▲이정일(의대·의학)교수=1일부터 12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방문 ▲민병순(치대·치의학)교수=1일부터 6일까지 국제학회 참석차 미국방문 ▲김광호(한의대·한의학)교수=일부중의약학술장심의 논문심사차 대만방문 ▲김권삼(의대·의학)교수= 6일부터 13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방문

【수원캠퍼스】▲박정석·유승민(공대·기계)교수=15일부터 22일까지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미국방문 ▲정인식(자연대·유전)교수=8일부터 11일까지 학술논문 발표차 미국방문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박례나(생물·1) ▲윤착희(지리·1) ▲이호섭(화학·3) ▲윤주일(법학·2) ▲옥광석(경제·4) ▲정기수(경제·4) ▲최준규(무역·1) ▲김병미(미교·3) ▲김선희(식영·4) ▲홍현기(의학·1) ▲김세희(의학·1) ▲김수영(간호) ▲민선희(한의학·3) ▲김일연(한의예·1) ▲백현준(한의학) ▲박진하(축구부) ▲김상훈(축구부) ▲이상민(삼의원318) ▲김종영(삼의원312)

【수원캠퍼스】▲오정선(일문·4) ▲박현정(리시아·2) ▲배재철(무역·1) ▲송기현(무역·2) ▲장세현(무역·3) ▲노가영(회계·2) ▲이길우(우주·2) ▲신우석(우주·3) ▲박창용(기계·2) ▲정재훈(전자·3) ▲정재원(화공·1) ▲지영익(산공·4) ▲김학환(전파·2) ▲박철진(식공) ▲어용진(식공·3) ▲박지성(도예·1)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김래정(영교·91) ▲호정은(국문·90)

분 실

습득자 편집실로

【수원캠퍼스】▲문병숙(영문·89)=검정지갑(면허증, 학생증, 택시운전 자격증등) 10월 24일 오후 4시30분 외대내정

동문모임

영진고 등산모임

【서울캠퍼스】▲영진고 등산모임=7일 오전 10시 회기역 ▲영동고·선화여고=5일 오후 6시30분 경희회관 ▲강서고·상명여고=5일 오후 6시 정문앞 ▲안동고=3일 오후 6시 체대앞 녹원 ▲해남향우회=2일 오후 5시 공대앞 논다방

【수원캠퍼스】▲성보·영과고=5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강서고=5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경동고=4일 오후 5시30분 학생회관로비 ▲명륜·강일여고=4일 오후 7시 이삭Ⅱ ▲홍성고=2일 오후 5시30분 3호관 휴게실 ▲경기고=2일 오후 5시30분 강릉식당

"내사랑 경희동산 내손으로 깨끗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교직원일동은 지난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동안 '국토대청결 운동'의 일환인 '고창산 청결운동'을 벌였다.

'내사랑 경희동산, 내손으로 깨끗이하자'라는 취지로 실시된 이번 청결운동에서는 약 1백여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10여개의 조로 나누어 고창산 일대와 교정 구석구석에 버려진 오물을 수거했다.

〈신철식 記者〉

朔風

조선총독부 당장 헐라!

옛 조선총독부건물인 현 국립중앙박물관 해체·철거를 놓고 각계에서 '선철거론'과 '후정거론'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8월9일 김영삼대통령은 "우리 조상의 빛나는 유산이자 민족문화의 정수인 문화재를 옛 조선총독부건물에 보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하고 "총독부건물해체와 함께 앞으로 닫힘 한민족시대에 대비하고 5천년 문화민족으로서 긍지에 합당한 국립중앙박물관을 국책사업으로 긴린하는 문제를 정부가 조속히 적극적으로 검토, 착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말이 언론에 보도되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철거찬성'이 70%에 육박하고 각 언론사에 철거성금이 답지하기 시작했다. 그리나 반대로 치욕의 역사도 역사이니 만큼 오히려 '보존'시키면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이 뜻있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대세'에 밀려서인지 선절거쪽으로 여론의 가닥이 잡혀나가는데 지난 10월28일자 중앙일보 사회면 머리기사에 '중앙박물관 임시이전, 각계·서울시 반대'란 제목으로 문화재 임시이전 보관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며 '우리의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측에서는 5천1백73명의 서명자 명단이 포함된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왜 우리는 옛조선총독부건물을 해체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보다 확고한 원칙이 필요함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우리의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측에서 나온 문제제기는 옳다.

그러나 총 유물 12만여점 중 중앙박물관에 상설전시되고 있는것은 7천여점, 나머지 6만여점은 지하수장고에 보관하고 기타 지방박물관에 5만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즉 7천여점의 유물을 임시이전 하느냐 아니면 새 중앙박물관을 번져건립하고 나서 유물을 완벽하게 '보존'한 다음 총독부건물을 철거한 것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측에서는 총독부건물 철거를 위해 유물을 임시이전하게 되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도난·파괴등 현실적인 피해를 염려한 것이다.

그러나 해방 50주년과 2천년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제가 남겨놓은 식민통치의 증거물을 우리들 머리 위에 이고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정기의 회복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제는 서울중심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이땅의 기맥을 끊고자 경복궁을 헐고 조선의 최양과 일본의 흥기를 상징하는 '日'자모양의 총독부를 짓고 이 건물 안에서 한국인에 대한 온갖 착취와 수탈, 한민족문화의 말살정책을 폈던 것이다. 이런까닭에 7천여점의유물때문에 총독부건물 철거를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작은 것'에 집착 하여 '큰 것'을 잃고 마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제는 총독부건물을 만든것이지 박물관으로 만든것이 아니지 않은가.

분명한 것은 건물을 그냥 놔둔채 해방 5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민족사에 대한 모독이다. 당장 헐라.

〈春秋〉

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서주환(조경학과 교수) : 1백50만원 △최명식(산업디자인학과 교수) : 1백50만원 △천억한(식품가공학과 교수) : 1백50만원 △서길용(도예학과 교수) : 1백50만원 △이승우(원예학과 교수) : 1백50만원 △윤진일(농학과 교수) : 1백50만원 △천영대(서울 학생처 학생과장) : 2백만원 △장혜수(총무문화 사무국장) : 2백만원 △유성근(산의원 주임) : 50만원 △노인수(출판국 직원) : 1백만원 △박현서(식품영양학과 교수) : 1백만원 △구성자(식품영양학과 교수) : 1백만원 △이영순(식품영양학과 교수) : 1백만원 △한명주(식품영양학과 교수) : 1백만원 △김인숙(의상학과 교수) : 1백만원 △박민여(의상학과 교수) : 1백만원 △황춘섭(의상학과 교수) : 1백만원 △김미숙(의상학과 교수) : 1백만원 △홍형옥(가정관리학과 교수) : 1백만원 △유영주(가정관리학과 교수) : 1백만원 △조복희(가정관리학과 교수) : 1백만원 △오혜경(가정관리학과 교수) : 1백만원 △손백현(학생처 복지주임) : 1백50만원 △이현규(법학과 73학번) : 1백20만원 △전양구(2부수업부 직원) : 50만6천원 △조두행(경영대학원 교무과장) : 2백만원 △양승덕(관리과 관리주임) : 1백만원 △문승상(동문) : 2만원 △안영정(취업정보실 차장) : 2백만원 △심천구(관리과 과장) : 1백50만원 △최정열(관리과 직원) : 1백만원 △이병수(관재과 과장) : 1백20만원 △송강현(관재과 주임) : 1백만원 △김정길(비서실 과장) : 2백만원 △김노환(연구과 과장) : 1백20만원 △김진용(자연대 수학과 교수) : 1백20만원 △박성일(자연대 수학과교수) : 3백만원 △김광현(자연대 수학과교수) : 1백80만원 △하성남(자연대 수학과교수) : 1백20만원 △김병학(자연대 수학과 교수) : 1백20만원 △이종실(재단 과장) : 1백20만원 △허정숙(대학원 주임) : 1백20만원 △오상훈(재단 사무국) : 5백만원 △이창순(사회대 사회학과 교수) : 2백만원 △유동준(의대 교수) : 5백만원 △한명주(서울 관리과 직원) : 1백만원 △이정규(정경대 경영학과 교수) : 2백만원 △서성한(정경대 경영학과 교수) : 5백만원 △손정호 : 10만원 △정혜영(정경대 회계학과 교수) : 1백20만원 △익명 : 3백만원 △송용희(학적과 중명주임) : 1백만원 △변영섭(학적과 학적주임) : 1백만원 △이유자(학적과 직원) : 50만원 △주진희(학적과 직원) : 50만원 △이영숙(학적과 직원) : 50만원 △선인순(학적과 직원) : 30만원 △김용욱(공대 화학공학과 교수) : 3백만원 △양문호(의대 교수) : 5백만원 △방곤(수원 외대 교수) : 1백20만원 △최원섭(생물학과 교수) : 80만원 △이인성(약대 교무주임) : 1백만원 △이현수(연구처 직원) : 1백만원 △최덕철(경남대학교 교수) : 1백만원 △장병서(성경대 경영학과 교수) : 2백만원 △조명원(의대 실험실 직원) : 1백만원 △박정호(한의대 실험실 직원) : 60만원 △안남열(의대 예방의학교실 직원) : 50만원 △김성태(법대 법학교 교수) : 50만원 △이원근(공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3백만원 △김명구(예비군연대본부 직원) : 1백20만6천원 △엄기건(예비군연대본부 직원) : 1백5만원 △오세덕(법대 행정학과 교수) : 2천만원 △강태완(정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1백만원 △김진학(정경대 무역학과 교수) : 2백만원

이상 10월 7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접수 내역임.

발전기금 접수안내

개인(교수, 직원, 학생, 동문), 단체(직장, 동문회, 동아리, 학생회)누구나 액수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며 기금접수는 온라인 계좌 또는 직접 송연할 수 있다.

국민은행 : 010—01—0618—642
신탁은행 : 17301—2710—209
농 협 : 031—01—396711
우 체 국 : 012336—0025556
(예금주는 각 계좌별 공히 '경희대학교'임)

〈기금접수에 관한 문의는 4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961—0025·6)로 문의 바람〉

새모습 새시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사영어학원

수많은 선배님들의 외국어 배움터였던
「과거」의 시사영어학원은
새모습, 새시설로 새롭게 태어난
「오늘」의 시사영어학원을 뛰어너머
21세기의 도전에 동참하는 당신의
「미래」의 시사영어학원이 되겠습니다.

TOEIC
TOEFL L·C
AFKN News & Drama 청취반
미국어 HEARING
TIME
영작문
영어회화(한인·미인)
WRITING SEMINAR

일어문법·독해·회화
일본어 능력시험대비반
독일어문법·독해·회화
러시아어문법·독해·회화

TOEFL
영어순해
VOCAB 22000
거로 VOCAB
성문종합영어
성문기본영어

TOEFL 600
GRE
GMAT
M·A ENGLISH
통역대학원전문반

주말특별반

대표 734-2442 종로2가 종로서적 뒤